

동대 경주 선센터 건립 영상 메세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도약하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선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1700년 한국불교의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대한 기대가 점증하는 시절인연을 생각하면, 선센터의 건립이야말로 미래를 향한 한국불교의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일 것입니다.

우리의 참선은 전통적인 수행양식으로서 한국불교의 정통 선맥을 오늘날까지 잘 이어오게 한 불교문화의 꽃입니다. 앞으로 경주캠퍼스의 선센터가 종단이 추진하는 한국불교 세계화에 역할과 기여를 다할 것으로 종도들은 크게 기대할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주는 압박감과 첨단문명의 속도전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의 삶을 희망하는 인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올바른 수행방법인 간화선을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 중심의 역할 속에서 인류사회를 향한 더없이 큰 보시가 될 것입니다.

이 불사의 원만한 성취를 위해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대법회에 무루 동참하여 무량한 공덕을 쌓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